말씀제목: 나의 언약스토리와 치유
말씀구절: 창13:18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들어가는 말씀
우리가 매주 금요일에 치유관련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치유하실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있으니 그것이 기도이지 치유와 응답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신다.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안된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짓을 해도 이것을 절대로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하신것은 절대로 되돌아 가는 법은 없고 거기에 대하여 약속의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써놓으셨고 그대로 하신다.

그때가 되기전까지 아무리 욕을 하고 대들어도 거두어 가지 않는다. 이유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것을 알게 하신다. 그것은 마지막때 가보면 안다. 내가 마지막때에는 그냥 준것을 싹 거두어 드린다고 하셨다. 그때 이후에는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절대 은혜가 없다.

10처녀 비유가 이 이야기이다. 5선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다 갔다. 구해왔는지 어쩠는지 와서는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열어주셨다. 그때는 하나님이 시간 지났다고 안하고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시간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을 빨리 아는 것을 보고 지혜라고 한다. 그 날이 되어 아는 사람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난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다 아무리 울어도 절대로 은혜를 안 주신다. 대신 시간전에는 당신이 와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다. 죽을 때까지 못이 박혀 있다는것을 생각을 해보라. 그 시간전에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만 1초만 지나도 절대 은혜가 없다. 이런 은혜로 불러 주신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평생을 바치시라 그러면 평생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이 오늘 있기를 바란다.

나의 언약 스토리와 치유
산업선교 메시지를 바탕으로 전하겠다.
서론
1. 나의 인생 스토리 –
1) 이렇게도 목사가 많은데 왜 교회가 문을 닫는가? 류목사님) 신학교 졸업식때 생각한 내용을 메시지로 많이 들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스토리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언약이 되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 했다.
2) 7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이야기 하였다. 내 인생의 스토리이다. 아주 대단한 언약이고 터닝포인트였다는 것이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다. 그 때 이후로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깊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한테든지 말할 수 있다 이때 부터 였다고... 이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온 그때부터 이것을 인생 스토리로 표현했다. 이런 단어가 나온지 오래 되었다. 이 스토리 안에서 세가지 하라고 했다.

3) 세가지기도 – 인생의 터닝포인트, 이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한다. 계속 말씀을 따라 간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완성이 된다 이 언약이 여기에 대하여 증인이 된다. 항상 전도있어야 한다. 자기 인생 살아온 것을 이야기 한다. 그리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야 할것이 있다.
4)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절대 집중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두고 하나님앞에 절대적으로 집중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답이 온다고 말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고 하였다. 출발에서 시작해서 쭈욱 살아온것을 이야기 한것이다.
그전에도 살아온 내력이 많이 있겠으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난 후부터 출발 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것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스토리는 무엇인가 질문을 하라고 했다. 해보시라. 그리고 한번 정리도 해보시라.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것과 다르다. 이것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소원과 연결이 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지나가면서 세계복음화로 가야 한다. 핵심 메시지에서는 절대 여정의 기준은 237-이고 5000종족이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 3시대도 나온다. 기준이다. 세뜰, 금토일 , 그리고 묵상시대, 가만히 생각해보니 3시대 이거 메시지 아마 영원히 갈런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각오를 해야 한다. 특별히 교역자 장로님들은 각오를 하시라. 하나님 은혜로 받은 분들 많이 있지 않은가? 생명 걸어야 한다. 3시대, 절대 여정을 가야 한다.

그러면 내 인생의 절대 여정이 되면 절대 여정의 정복이다. 성경과 같은 절대 정복과 같은 응답이 오는 절대 여정이다 1번 조건의 기준이 뭐냐니까 237이다. 세계화와 맞지 않는 것은 사업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중간 중간 일어났던 것을 말을 했다ㅣ. 큰 것을 집어서 말을 한것이다. 그전에도 전도운동 많이 했었다 졸업전에 적어도 10년-15년을 했을 것인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집으라면 그 졸업식이었다는 것이다.

그때 부터 많은 세월 지나면서 세계복음화 많이 했지만 터닝포인트를 집으라면 이것이라는 것이다. 777. 이것이 중요한 터닝포인트인데 말씀 안 받고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는 받으니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문 열려서 증인이 된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중에도 계속 문제가 왔는데 설명을 하거나 하면 더 문제가 계속 오더라는 것이다. 아무 한테 말할 것없고 의논해도 되지를 않는다 오직 한분 뿐이다 하나님! 생명걸고 집중했다. 그러니까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답이 나온 것이다. 나는 이것만 하고 있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했다. 인생 스토리이다. 나는 어디 가서든지 이것을 말할 수 있고 이것이면 된다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정도 크지는 않아도 다 있지 않은가? 나는 제일 부러운게 목사의 터닝포인트이다. 그 다음부터는 나도 있다. 왜냐면 나는 이분에게 복음을 배워버렸다. 내게 복음이 들어오기전에 이런 시간표가 있어야 한다. 내 생각은 이것은 원조의 시간표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도 다 있지 않은가? 사람에 따라 크고 작은것은 다 있다. 인생을 한번 정리 해 볼 필요도 있다. 나는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게 있냐? 그게 어느정도이면 237이냐? 그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3시대인가?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다.

2.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전에 확인해야 한다.
1) 저주에서 해방이다. 틀림이 없다. 절대도 뒤집어지지 않는다.
2) 음부에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놀랍다 항상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3) 우리는 열쇠를 받았다. 이 열쇠는 그리스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다 연다. 원인은 나이다. 원인은 블레셋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소원과 언약이 회복이 되면 축복은 자동으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가져온 단어가 치유이다. 하나님으로 부터 치유를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본론 –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다. 오늘 본문도 그렇다.
1. 창13:18 – 창12장에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내용이 2번이 나왔다 13장의 단은 처음 쌓은것이 아닌데 왜 강조를 하는 것인가?
1) 모든것을 걸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단을 쌓았다. 양다리 걸친것이 아니고 진짜로 무릎을 꿇고 단을 쌓은 것이다.
2)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3) 세계복음화 시간표가 안온다. 류목사님의 말씀이다. 우리 모두 인정을 한다 세계복음화 까지 가지 않아도 내게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내기도가 효과가 없다.
4) 오직의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 단위의 단이다.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시작이다.

2. 창32:23-32 야곱의 인생 최고의 문제
1) 인생최고의 시간 – 거부가 되어 돌아왔다 형만 지나가면 되는데 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2)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한 것이다. 하나님도 용서 해주고 하면 될것같은데 밤새도록 안된다고 하신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하는것이다. 그러니 고치라는 것이다. 여전히 인본주의로 응답받으려고 물고 늘어진다.
3) 결국 평생의 응답을 받았다. 절름발이-환도뼈를 쳐서 부러졌다. 평생 절고 다녔다. 야곱 입장에 보면 평생에 응답이다. 아침마다 일어나 걸을 때마다 생각할 것이다 나의 인본주의, 바울은 사단의 가시라고 했다. 의미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역할은 같다. 하나님이 바울보고 이야기 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더이상 말하지 말라고, 바울은 그게 무슨 말인지 캐취를 하였다. 그 이후로 그것에 대하여 더 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것을 자랑을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한것이다. 성경에 기록했지만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에 그렇다. 지금 고난이 바울의 가시라고 해도 받아 들일 사람 잘 없을 것이다.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을 가진 사람이었다.
4) 결국은 축복을 하여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야곱은 평생 살면서 내가 그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다고 이야기 할것이다. 누가 야곱에게 왜 하나님 믿냐라고 물으면 내가 이래서 믿는다고 증언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스토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 스토리라고 하고 언약스토리라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때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혔을 것이다. 그날 진짜 모든것 내려 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으니까, 야곱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언약이고 경험이었다.

3. 창37:1-11 요셉 – 처음부터

1) 확신한 언약을 받았다. – 서론에서 이야기 했는데 렘넌트 7명은 누구에게서 배웠나고 했다 하나님께로 바로 배웠다. 그래서 기도도 언약도 그렇고 하나님으로 부터 바로 배운 사람들이다. 요셉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적서밋이었다.

2) 영적서밋이었고 이후에 현장으로 갈때는 영적황제였다 왕이 꼼짝을 못했다.

3)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시대도 살린것이다. 이렇게 되어진 요셉에게 너, 하나님께 받은게 뭐냐고 하면 뭐라고 할것인가 하는 단어이다.

4) 언약이야기에 증인이 될 것이다. 놀라운 치유이야기이다. 자기의 가문, 나라에 치유하신 이야기이다. 이런 인생 스토리가 있냐 이말이다. 우리도 이런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류목사님은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한번 참고를 해보라는 것이다. 정리를 해보고 다시 한번 마음에 심고 그런거 해보라는 것이다.

결론 – 나의 인생 스토리는 무엇인가?

1) 나의 인생 스토리는? –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뭐냐? 누가 내게 물으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치유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자기만 아니고 가문 나라 시대를 살렸다. 요셉은 아마 이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날 저녁에 있었던 경험과 받은것을 평생 잊을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굉장한 바탕이 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류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할것이다.

2) 치유-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것을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 한다. 정리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아직 치유가 안된 사람은 이것이 안되서 치유가 필요한것이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인다. 오늘 저녁에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 영적문제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들어오면 바로 치유가 된다.

3) 은혜 – 언약안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응답이 있을 것이다.